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시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예비자 교리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영적 예물

-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님 영명축일 기도선물
- ①미사 및 영성체 ②묵주기도 ③성체조배 ④학생
- ⑤주교님을 위한 기도
- ⑥제출기한 : 6월 19일(일) / 성전 입구 봉헌함

● 알 림

- 오늘은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단식 2한금 (서울대교구)이 있습니다.
- 6월 22일(수) 11시 베타니아 노인정 월례 미사 있습니다.
- 6월 23일(목) 19시 40분 강당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 6월 25일(토) 임원소풍(원주 소금산) 있습니다.
- 다음 주(6월 26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6월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병자영성체(봉성체)가 재개되었습니다.
- 7월호부터 매일 미사 책 판매가격이 소(소) 1,500원, 대(대)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울뜨레아	6/19(일), 11:40~13:00	강 당
사목협의회	6/23(목), 19:40	강 당
성체분배자회	6/26(일), 11:40	성체조배실
성령기도회	매주 월요일, 19시 40분	1교실

● 예비자 입교식

- 6월 26일(일) 10시 30분 / 교중 미사 중

● 베타니아 노인정 이용 안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1시 베타니아 노인정 월례 미사 봉헌합니다.
- 점심 식사를 무료 제공합니다.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6/2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 소	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6월 8일 ~ 6월 14일)

교 무 금	6,119,000원
주일헌금	4,665,200원
시설헌금	우성식 5만원
감사헌금	김영길20만원 김성호45만원 정애자 5만원 김보람 5만원 김옥순10만원 조병채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6/19	최경희	심재순	도현만	최웅조	정재경
6/26	이영민	신종구	최상림	김덕영	김보금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6/19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최석준	오광운
6/26	박승환	오광운	장인홍	최승일	최영만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72. 21세기에 “민족 국가들의 영향력 감소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경제와 금융이 정치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정부들의 합의 아래 공정한 방식으로 위임된 권위로 제재의 권한을 지닌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구성된 국제 조직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규제되는 어떤 세계 권위 형태의 가능성에 관하여 말할 때, 반드시 개인적 권위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인적 권위는 적어도 세계 공동선, 기아의 빈곤 근절, 기본 인권의 확고한 수호를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더욱 효과적인 국제기구를 증진해야 합니다.

173. 이와 관련하여 저는 또한 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려고 합니다. “바로 국제 연합 기구의 개혁과 경제 제도와 국제 금융의 개혁입니다. 이는 지구촌 가족의 개념이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몇몇 나라들만이 권력을 취하는 것을 피하고, 문화적 강요를 방지하거나, 이념적 차이에 근거하여 약소국들의 기본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명확한 법적 제재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 공동체는 그 구성원인 각 국가의 독립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예속의 끈이 아니라 그 주권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법적 공동체이다.” 동시에 “국제 연합 헌장의 서문과 첫 부분에 나오는 원칙에 따르면, 국제 연합의 활동은 법치의 발전과 증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정의는 보편적 형제애의 이상을 달성하고자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본법 규범인 국제 연합 헌장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치와 협상, 조정, 중재에 끊임없는 호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연합 기구가 적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구의 문제점과 결점은 공동으로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4. 자유롭게 공동 목표를 세우고 전 세계가 몇몇 필수적인 규범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려면 용기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유효한 것이 되려면, “협약 준수의 의무”를 옹호하고 “법의 힘보다는 힘의 법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문서들의 ……범위와 구속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서들 가운데에서 국가들 사이의 다자간 협약에 우선권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다자간 협약은 양자간 협약보다 참된 보편 공동선의 증진과 약소국에 대한 보호를 더욱 잘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175. 하느님의 섭리로 시민 사회 안에 있는 많은 단체와 조직들은 국제 공동체의 결점,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미흡한 조정, 기본 인권과 특정 단체의 위기 상황에 대한 관심 부족을 보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조성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조성 원리는 국가 활동을 통합하고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공동체와 하위조직들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단체와 조직들은 자주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노력을 기울이며, 때때로 그 회원들은 우리 인류가 여전히 지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참된 영웅적 행위를 보여 줍니다.